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Use Strategies of CPTED for the Safety of University Campus

박동균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Dong-Kyun Park(police@dhu.ac.kr)

요약

대학은 교육·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은 물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공간이다. 대학의 물적 자원은 토지, 건물, 시설의 집합체로서 첨단장비와 노후시설 등이 혼재해 있으며, 연구시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시험, 신기술 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연구인력 양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교육·연구시설이 첨단화, 복잡화, 대형화 추세에 있어 인테리어 등 건축내장재, 기자재 등 가연물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연구실과 강의실 등 넓은 캠퍼스에 정원과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고, 많은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물과 기자재 등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대학들은 학생들의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책적 대안으로 캠퍼스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또한,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도보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와 민간경비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중심어 : | 캠퍼스 범죄 | CPTED | 민간경비 | CCTV | 범죄예방 |

Abstract

Though there are many crimes on and out university campus in Korea, no one knows anything about the size or the types of campus crime. But, there are many theft crimes and sex assault in the library and one-room village near the university campus.

This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campus security system, with the focus on the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Various types of crime prevention methods are being considered instead of conventional crime suppression measures. Among them, CPTED is drawing global attentio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i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deterring criminal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strategies rely upon the ability to influence offender decisions that precede criminal acts.

A truly safe campus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cooperation of all students, faculty, staff and visitors. The cooperation and involvement of the entire campus community in campus crime prevention is absolutely necessary.

University should adopt a series of policies and procedures designed to ensure that every possible precaution is taken to protect persons and property on campus.

■ keyword : | Campus Crime | Crime Prevention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Private Security | CCTV |

I. 서론

대학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지식창출, 기술의 개발이라는 사명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은 많은 인적 자원이 밀집해 있는 교육공간이며, 대학공간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안전사고, 화재, 폭력, 성범죄,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와 범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1]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2].

현재 대학 캠퍼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 환경이다. 사회교육원에 개설되어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학 홍보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개최, 축제기간 중 밤늦은 시간까지의 음주, 대학 캠퍼스내의 산책 및 등산객 등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또한, 은행신용 카드와 서적, 아파트 분양 판촉, 사회복지 기금모집 등 각종 영업사원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대학 연구실과 사무실 등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대학 캠퍼스의 개방 환경 속에서, 캠퍼스가 범죄발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3].

대학은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과 예비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생활에 있어서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실험·실습과 동아리 활동 등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최적의 안전 환경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복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로 인한 대학 구성원의 피해와 시설물의 손실발생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CPTED가 확산되고 있다. 2008년 11월 입주를 마친 서울 장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설계 당시부터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눈주목, 진달래, 철쭉 같은 키 작은 관목과

2m 아래로는 가지를 뺀지 않는 소나무, 감나무 등 키 큰 수목을 조경수로 택했다. 나무로 인한 사각지대를 없애 '공동 감시' 효과를 높인 것이다. H 건설은 또 층남 당진에 신축 중인 아파트에도 도둑이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관에 폭 12cm 정도의 사각형 덮개를 씌우고, 1·2층에는 창문에 적외선 감지기를 다는 등 곳곳에 CPTED 개념을 적극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를 공간적 범위로 선정하여,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운용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발간된 연구논문과 정부보고서, 외국의 관련 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기술적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을 채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CPTED의 의의 및 특징

CPTED는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한 설계를 주장하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환경적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약자이다. CPTED를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특정지역의 방어 공간적 특성을 강화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발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범행의 성공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인식시켜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 사회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차 발생이 예견되는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안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5].

CPTED가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을 위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미국 법무부에 재정지원을 받은 Westinghouse 회사에 의해 수행된 CPTED 프로젝트였다. 주거지역에서만 활용했던 CPTED 개념을 상가, 교통수단, 그리고 교육환경에까지 확대시켜 적용했던 것으로서, 비록 80년대에 연방정부의 CPTED에 대

한 관심이 다소 적은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주와 지역 단위 정부가 CPTED 프로젝트를 선도하면서 많은 성공적 사례들을 선보여 왔다[6].

CPTED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증진시키는 것이다[7]. 그러나 이러한 목적들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CPTED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한 우호적인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8].

CPTED는 범죄예방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다. CPTED는 범죄예방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인데, 범죄의 형태가 다르다면 그러한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결정요소도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전통적인 범죄예방이 넓은 범주의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라면 CPTED는 특정행동을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이라 할 수 있다[9].

2. CPTED의 구성요소와 효용

CPTED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운영요소를 필요로 한다. 초창기 Newman은 '방어공간' 이론의 구성요소로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를 제시하였다[10] 그 이후 Moffat은 1세대 CPTED의 개념에는 Newman이 제시한 네 가지 요소 외에 두 개의 요소를 더하여 6가지의 특성을 제시했다. 즉 목표물 강화, 영역성, 감시, 접근통제, 이미지 유지관리(image maintenance), 활용성 증대(activity support)가 바로 그 것이다[11][12].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는 범죄에 대한 물리적인 장벽을 설치하거나 강화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대상물의 약점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CCTV의 설치, 자물쇠, 잠금장치, 방범창, 경보장치, 자동차의 핸들잠금장치(handle lock system), 담장이나 강화물질 등 물리적 장애물 등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에 도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잠재적 위협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13].

영역성(territoriality)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

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영역성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공간임을 표시함으로써 외부의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조치들이다[14]. 이는 사적 공간에 대한 거주자들의 인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의식을 강화시켜 범죄에 대항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적극적으로 부착하여 관리하는 효과를 가진다. 영역성 강화의 예로는 경계선을 나타내는 울타리, 표지판, 조명, 조명 도로 경계석의 설정 등이 있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의 활용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을 악용하려는 시도를 억제시켜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동기를 차단하거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15]. 예를 들어, 투시형 펜스의 설치, 가시수종의 관목 식재, 인지가 용이하게 설치된 출입구, 출입구 개수의 최소화, 출입차단장치 및 잠금장치의 설치, 일방통행로, 그리고 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출입문 등은 이방인에 의한 가로의 이용을 줄이고 합법적 이용자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시(surveillance)는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범죄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원리이다[16].

예를 들어, 경비원의 배치, 조명 설치, 가로등 개선, 담장 높이 낮추기 등은 집이나 건물의 내부나 외부에서 이웃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가시를 더욱 늘릴 수 있게 하는 설계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이미지 유지관리(image maintenance)는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한다는 원리이다. 어떤 공간이 황폐화되거나 버려진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그 곳에 범죄인들이 모여들게 되고, 무질서와 범죄가 증가하게 되며, 일반 시민들의 접근은 점차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폐화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지역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인들을 유혹

하는 대상을 없애고, 거리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잘 관리해야 한다[17].

활용성의 증대(activity support)는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 및 자극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런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놀이터의 경우 놀이시설의 보강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구 등의 설치를 통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놀이터로 함께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운동시설을 다양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는 장소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III. 대학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전략

대학 캠퍼스는 인적, 물적, 지식정보자원 등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이러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이해관계자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불문하고, 동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학의 범죄표적이 될 수 있다[18].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CPTED의 이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명의 개선을 통한 보호와 감시

범죄가 빈번한 장소의 특징은 접근과 출입이 용이하고, 사람들에 의한 자연스런 관찰이 어려우며, 어디까지가 관리되고 통제되는 구역인지가 불분명하고, 지지분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19]. 또한, 그런 장소에서는 통행인들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 훨씬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는 야간에도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밤에 많이 어두워진다. 따라서, 대학 캠퍼스는 강도와 성범죄 의도를 가진 범죄자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와 같이 캠퍼스 내에 은폐할만한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자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다.

대학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보호와 감시의 부재이다. Fisher and Nasar(1992)는 감시성의 정도와 관계있는 것으로서 시야, 은폐, 그리고 도주의 세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야(prospect)는 개인이 어떤 지역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보다 시야가 넓은 지역은 시야가 제한된 지역에 비해 범죄의 공포와 범죄피해가 낮은 것이라는 것이다[20]. 둘째, 은폐(refuge)는 가해자가 잠재적인 피해자로부터 보이지 않게 숨을 수 있는 은폐처의 존재 또는 부재를 말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숨을 수 있도록 만든다. 셋째, 도주(escape)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범죄의 전후에서 어떤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21].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는 심야에 어둡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으며, 출입구나 야산 등 범죄 후 도주도 용이한 편이다.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로등의 조도를 높이는 등 조명시설의 개선이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의 실험·실습실 등의 출입문이나 창문들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투명강화유리 등으로 교체하여 내부의 문제점들을 밖에서 볼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시에 CPTED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비실의 위치를 통행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숲이나 수목 등도 일정 수준의 높이로 조정하여 범죄자가 은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야간 순찰의 강화

실제 사례로서 2007년 11월 16일 새벽 2시경, 대구시 북구 00대학교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C(23)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교내 치안 부재를 지적하는 학생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Fisher and Nasar(1992)는 대학들이 은폐처가 많고,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며, 도주가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은폐처가 많은 지역, 시야가 제한된 지역, 그리고 도주가 어려운 지역은 큰 공포를 갖게 한다고 한다[22].

대학 캠퍼스에서 손쉽게 감시나 보호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캠퍼스 내부를 특히 야간에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00대 여대생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구경북의 대학들은 자체 캠퍼스의 치안을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영남대는 1990년대 초반, 학생자율조직으로 ‘영대지킴이’를 조직하여 “내가 다니는 캠퍼스의 안전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나선 뒤, 1997년부터는 장학금까지 받는 공식적인 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이들의 활동시간은 학기 중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85만평에 이르는 넓은 영남대 캠퍼스를 5개조로 나누어 4시간 동안 수시로 야간순찰을 실시한다. 이들의 순찰로 인해 2년 전 야간에 속출했던 폭주족도 사라지고, 안전감도 증진되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다.

계명대학교는 2005년부터 ‘Campus Police’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교내전역을 순찰하고 있다. 인근 경찰서에서 하루 2, 3회씩의 교내순찰을 지원받고 있으며, 도난예방을 위해 단과대학과 도서관 열람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도 CCTV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의 대구가톨릭대학교는 ‘CU 지킴이’ 남학생 8명이 호우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캠퍼스 곳곳을 돌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 이외에 해병전우회 동아리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내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경북 경산의 대구대학교도 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캠퍼스 학생경찰 봉사대’를 조직하고, 매일 2인 3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학 캠퍼스를 순찰하고 있고, 야간에는 자율방범대인 ‘피스메이커’가 매일 6인 8조로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자취촌이 밀집한 지역 중 위험지역 6곳을 선정해 대구대와 경산경찰서가 공동으로 거주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를 운영하고 있다[23].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이 열린 캠퍼스를 지향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캠퍼스를 개방하고,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오가면서 사실상 교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00대 여대생 피습사건 등과 관련된 유사사례에 대한 대비책으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을 교문까지 또는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에스코트해주는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아직 높다. 하지만 일찍이 늦은 밤 귀가하는 학생들을 에스코트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 온 미국에서 ‘캠퍼스 경찰’은 이미 익숙한 존재다. 이들은 교내에서의 잠재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일을 한다. 수시로 하는 교내 순찰과 에스코트 서비스는 물론, 기숙사 출입을 관리하고 교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게시판에 공고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 까지 캠퍼스 경찰의 역할이다.

앞서 제시한 대구경북의 대학들의 캠퍼스 폴리스 사례와 미국의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이 우리나라 모든 대학 캠퍼스에 필요한 때이다.

3. CCTV의 확대 설치

대학 캠퍼스의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24], 대학 캠퍼스내의 범죄유형 중 심각한 것으로서 대학생들은 ‘절도(57.5%)’, ‘성폭력(2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절도에 취약한 장소로서 ‘도서관(41.2%)’, ‘원룸 등 자취방(39.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은 대학생들이 수업시간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각종 소지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많은 대학들이 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도서관은 절도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자취방 등 원룸지역은 많은 학생들이 운집하여 살고 있으며, 아울러 주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절도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원인규명에 의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정도의 질적, 양적인 증가양상을 드러

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원인에 대한 학술적 탐구뿐만 아니라 범죄의 억제와 통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CCTV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은 CCTV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CCTV는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범죄감축과 예방을 위해 적용된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침입자가 감지되어 범행 중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고, 오경보(false alarm)를 미리 알고 효과적인 경비원이나 경찰력 배치와 출동에 기여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민들이 그 기기에 의해 범죄나 안전에 대한 걱정심을 고취시킨다는 등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내무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추진되어 왔다[25].

박동균의 연구(2006)에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CCTV 설치를 찬성한다(81.4%)'는 응답이 'CCTV 설치를 반대한다(10.8%)'는 응답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CCTV가 범죄예방에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학내 공공장소에 CCTV의 설치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CCTV가 필요하다면,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대학 캠퍼스 밖의 원룸주변 골목(48.7%)'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CCTV를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하여 '녹화 테이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35.6%)'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다. 즉, CCTV 녹화 테이프의 보관과 사후처리 기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벌칙 등과 같은 CCTV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CCTV 촬영은 설치 전에 반드시 지역 공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26].

4. 민간경비의 활용

민간경비는 최근에 이르러 방법 기능에서 방제와 방화 등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크게 방범, 방재, 방화의 3대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현재 민간경비의 서비스 형태로는 개인

의 안전관리에서부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는 불법적인 외부의 각종 인위적인 위협 또는 자연적인 위협으로부터 시민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생명 또는 재산 등을 방어 및 보호할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특정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경비를 포함한 안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기업이다[27]. 최근에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서 학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회사와의 경비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 캠퍼스 내의 각종 시설에는 고가의 기자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화학약품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절도 및 인적 재산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학 캠퍼스에 대한 절도 방지 및 안전관리는 민간경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IV. 결론

대학은 교육·연구 시설과 장비 등 다양한 첨단시설이 집약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자원의 활용을 통해 교육과 훈련으로 학생들의 적성을 개발하여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새로운 지식정보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압축적 공간이다. 대학 캠퍼스는 교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공간으로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캠퍼스를 공간적인 범위로 선정하여 CPTED의 운용전략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예방에 대하여 매우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여기에다가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교 이미지를 이유로 미봉책으로 해결하는데 급급하였다.

미국은 대학에서 발생한 범죄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 학생들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 알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Jeanne Clery 캠퍼스 안전정책 및 캠퍼스 범죄통계 정보공개법은 처음에는 ‘캠퍼스 안전법’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전역에 걸친 단과대학 및 대학교의 캠퍼스와 캠퍼스 주변에서 범죄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인 연방법이다. 이 법은 모든 대학들이 각 대학 캠퍼스나 주변에서 범죄정보를 유지하고 공개하도록 연방정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이 법의 순응여부는 미국 교육부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이제 대학들도 학생들이 당하는 범죄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캠퍼스내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는 야간에도 개방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밤에 많이 어두워진다. 캠퍼스 조명이 부실하다는 점은 동기화된 범죄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은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캠퍼스내에 은폐할만한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자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며, 따라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가로등의 조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치한 등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둘째, 범죄의 사각지대와 다발지역을 파악하여 순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 캠퍼스에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CCTV를 고려할 수 있다. 대학 캠퍼스에서 CCTV를 설치할 때, CCTV 녹화 테이프의 보관과 사후처리 기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벌칙 등과 같은 CCTV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며, CCTV 촬영은 반드시 지역 공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다음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대학 캠퍼스에 대한 절도 방지 및 안전관리는 민간경비 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비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박동균,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과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293-310, 2006.
- [2] 배대식,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 2009.
- [3] 박동균, CCTV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과 캠퍼스에서의 활용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293-310, 2006.
- [4] 한국일보, 2009년 1월 29일 13면.
- [5]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p.39, 2007.
- [6] 이제선, 박현호, 오세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0, No.2, p.216, 2008.
- [7]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p.39, 2007.
- [8] D. P. Rosenbaum, Community Crime Prevention: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Justice Quarterly*, Vol.5, No.3, pp.324-395, 1988.
- [9] 김영환,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Vol.13, No.5, p.275, 2008.
- [10] O. Newman, *Defensible space -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MacMillian, p.32, 1972.
- [11] 박기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p.137, 2009.
- [12] R. Moffat,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25, No.4, pp.19-31, 1983.

[13] D. P. Rosenbaum, Community Crime Prevention: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Literature, *Justice Quarterly*, Vol.5, No.3, p.135, 1988.

[14] 김영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9, p.40, 2007.

[15] A. Coleman, *Utopia on Trial*, Hilary Shipman Ltd, p.23, 1985.

[16] 김영환,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Vol.13, No.5, p.275, 2008.

[17] 박기범,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p.139, 2009.

[18] 배대식, *대학 캠퍼스의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 2009.

[19] 이제선, 박현호, 오세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0, No.2, p.216, 2008.

[20] B. S. Fisher and J. L. Nasar, Fear of Crime in Relation to Three Exterior site features : Prospect, Refuge, and Escape, *Environmental Behavior*(24), pp.35-65, 1992.

[21] 박철현,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 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Vol.9, No.2, pp.125-157, 2001.

[22] B. S. Fisher and J. L. Nasar, Fear of Crime in Relation to Three Exterior site features : Prospect, Refuge, and Escape," *Environmental Behavior*(24), pp.35-65, 1992. : 박철현, 대학의 특성과 캠퍼스 범죄피해, 피해자학연구, Vol.9, No.2, pp.125-157, 2001.

[23] 매일신문, 2009. 8. 28.

[24] 박동균, 캠퍼스 범죄피해 및 예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Vol.3, No.1, pp.19-33, 2006.

[25] 이제선, 박현호, 오세경,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한국적 도입을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0, No.2, p.223, 2008.

[26] 박동균, 캠퍼스 범죄피해 및 예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Vol.3, No.1, pp.19-33, 2006.

[27] 박동균, 민간경비원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5, pp.121-138, 2008.

저 자 소 개

박 동 균(Dong-Kyun Park)

정희원



- 1990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92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